

“대교협·교육부와 협의해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중앙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교육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돌봄교실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교실도, 인력도, 시설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돌봄교실을 확대·운영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허약했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기능·역할·규모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교협·교육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되셨는데 중점 추진 계획은?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살려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지역의 기대와 요구를 충실히 전달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시급한 현안인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해결과 세월호 진상규명 추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가 사업인 누리과정·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를 추진하면서 소요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재정 교부금법 상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5%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조만간 사무국을 광주로 옮길텐데, 사무국의 역할과 구성은 어떻게?

▲사무소장으로 4급 상당의 장학관을 배치해 시도교육청의 공동 안건을 검토·협의·건의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안이나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은 일이나 고민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전임자 복귀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근본 문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하루 빨리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교원노조법 개정에 앞서 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으로 법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자사고 폐지’와 관련,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은 있나?

▲교육감협의회에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 조건을 수정할 여지는 있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수능 아닌 학생부 중심 대입돼야 교육 정상화 시도교육감협 사무국 위상 키워 싱크탱크 역할

교육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회 상임위도 관련 법 정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으로서, 앞으로 교육부와 관계 설정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교육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부도 이전과 다르게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육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면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을 비롯해 뜻을 같이 하는 교육감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놓고 교육부와 갈등하고 있는데, 협의회 차원의 대응은?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은 교육감 권한이므로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주었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최근 교육부 차관 면담에서 소상히 설명했고, 교육부는 어렵지만 교육감들이 뜻을 모

그러기에 수정할 생각은 없다.

-자사고 정책과 관련,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정책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갈 수는 없나?

▲어떤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될 당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사고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으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에 이른 것이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왔으나 우리 교육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사고의 집단이기주의로 추진되지 못했다. 잘못된 정책을 누그러가는 나서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고, 각계 각층에서 참여한 위원들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만큼 이를 반영해 자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송원고와 자사고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사고가 우수인재 유출을 막는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폐지되면 상위권 인재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나?

▲우수 인재 유출 문제는 대입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정책이 추진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고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수능 중심의 대입 정책이 추진되면 자사고·특목고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자사고가 우수인재 유출을 막는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자사고로 고등학교가 일류고, 이류고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정부도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벤치마킹해 일반고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지역은 고교 평준화 체제가 어느 지역보다 잘 유지되고 있고, 일반고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일반고에서 수능 최상위권과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한 학교당 30억~35억원씩, 연 70억원 이상 지방교육재정이 지원돼야 한다. 그만큼 일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오히려 교육환경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자사고가 우수학생들을 싹쓸이하면서 일반고가 고사하고, 자사고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자사고 폐지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감수할 수 있다.

-‘일제고사 폐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구체적 전략은 있나? 또 일각에서는 일제고사의 장점으로 자신의 학습수준에 대한 객관적 위치·약점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라는 주장도 있다.

폐지한다면 자신의 수준을 진단할 방법은 뭔가?

▲일제고사 대비를 위한 암기식·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진보 성향의 교육감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교육감도 일제고사 폐지를 언급할 정도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부모들은 ‘야간자율학습 폐지’도 관심이 높다. 협의 차원에서 ‘폐지’를 끌어낼 수 있겠나?

▲광주만 야간자율학습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입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면 좋겠다는 판단에 전국 교육감들과 야간자율학습 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이다. 만약, 전국의 교육감들이 야간자율학습 폐지, 조기 등교 금지 또는 완화 등의 정책을 합의하고 시행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 정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만 ‘야자’ 폐지 안할 것 학생·학부모에 선택권 부여 전국 교육감과 논의할 생각

-이 모든 게 대학입시와 맞물려 있다. 입시제도 개선 대책은 있나?

▲대학입시 제도가 대폭 개선되지 않으면 초·중등 교육의 변화에 한계가 있으며, 입시를 둘러싼 지역별·학교별 경쟁도 완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협의해 공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 수능 중심에서 학생부 중심의 대입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고교 교육과정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국 교육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생각이다.

-혹시 진보·보수권 의견이 갈리는 등 협의회 내부 갈등도 우려되는데 어떻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며,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체가 지역의 특색,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 합의적 성격을 띠고 사안을 논의하고, 한쪽 입장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이뤄 온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마련,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SIEMENS
BNC빌딩 501호
지멘스 상무점
약형빌딩5층 501호
동행(문선시장)
상무역
아바들길2차당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